걷고 자전거 타면 온실가스 줄이고 돈도 벌어요

광주시 전국 첫 교통공단과 그린교통 서비스 협약

이동거리 등 따라 에코머니 月 5000 포인트 제공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만 타도 현금 포인트를 제공하는 생활 속 그린교통 정책을 실천하기로 해 관심이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교통안전공단과 시민의 자전거 이용 및 걷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발된 그린교통 포인트 서비스(GTPS)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스템 관리와 포인트 제공 등은 그린교통 포인트 서비스 협약을 맺은 교통안전공단이 부담한다.

그린교통 포인트 서비스는 도보, 자전거 등 그린교통 이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 받는 서비스다.

다만, 그린교통 포인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광주은행과 농협, 우체국, 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스마트폰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절차는 스마트폰으로 그린교통 포인트 서비스 홈페이지(www.gtps.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스마트폰에서 관련 앱을 설치하면 된다. 이후 도보나 자전거 이용시 해당 앱을 실행하면 이동속도와 거리가 자동으로 계산돼 ㎞당 도보는 20포인트, 자전거는 6포인트가 적립된다. 도보는 12㎞/h 이하, 자전거는 12㎞/h~35㎞/h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만 적립이 가능하며, 월 5000포인트, 연 6만 포인트까지만 인정된다. 속도 통제는 승용차 등 다른 교통수단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광주시민 10만명이 도보와 자전거 타기를 매월 10㎞씩 실천하면 2만7000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하는 효과와 맞먹는 연간 3720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예측된다.

임안섭 광주시 저탄소정책 담당은 "그린교통포인트 서비스는 개인건강도 챙기면서 광주의 대기환경도 지키고, 현금 포인트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교통 포인트 서비스는 도보와 자전거 이용 외에도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시 월 5000포인트, 연 6만포인트 한도내에서 금액의 10~20%가 적립되며, KTX와 고속버스는 한도 제한 없이 이용금액의 5%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서창동 영산강변에 있는 자전거 교육장에서 '초보라이더'들이 지난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모습.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만 타도 월 최대 5000포인트(원)를 제공하는 그린교통 포인트 서비스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응급실 온 자살 시도자, 재시도 막는다

광주시 의료기관과 자살률 낮추기 협력체계 구축

광주지역 응급의료기관과 5개 자치구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자살 시도자의 재시도를 막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는 최근 잇따른 자살과 관련해 자살 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막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시도자 내원이 많은 응급의료기관 중심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을 확대·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회복, 재활 촉진,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과 5개구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사례관리팀의 사례관리전담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이 공동으로 자살시도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단기(1개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광주시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말부터 올해 2월말까지 전문 응급의료센터인 조선대병원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3월부터는 연간 자살시도자 내원수가 300명 이상이며 광주·전남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살시도자를 관리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어린이 편식예방…'米사랑 키즈캠프'

광주 5개구 급식관리센터 체험 프로그램

광주시가 성장기 어린이의 편식을 예방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20~99인 규모의 어린이집 중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米(미)사랑 키즈캠프'와 '그린캠프' 등 편식예방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동·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서·남구 센터, 광산구 센터를 통해 특화사업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남구 센터는 24일까지 5·18 유아 숲 체험원에서 어린이들이 밥과 각종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은 米사랑 키즈캠프를 개최한다.

광산구 센터도 24일부터 이틀 동안 호남대 광산캠퍼스 제2잔디밭에서 어린이 채소 편식 막기를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린캠프'를 진행한다. 광산 어린이집 등 12개 어린이집 아동 210명을 대상으로 '채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를 주제로 한 모종 씨앗심기, '채소는 어떻게 먹을까요'를 주제로 한 채소를 활용한 요리활동 등 채소와 친해지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북구 센터는 지난 3월부터 어린이 편식 교정을 위해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키즈 식생활 아카데미를 운영중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원하는 등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 센터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융합 첨단문화상품 발굴 박차

광주시 사업 설명회…시제품 제작·상품화 지원

광주시가 지역 주력산업인 광산업(LED)과 문화예술 자원을 결합한 광융합형 첨단문화상품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2014년 광융합형 첨단문화상품 발굴지원 사업설명회가 21일 오후 광주디자인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사업은 기존 문화상품에 지역 특화산업인 광(LED)을 융합한 문화상품을 발굴해 상품의 고급화와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과제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시제품 제작과 상품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출원 및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광기술을 활용한 지역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해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까지 추진해 왔으며, 그 동안 독특하고 개성있는 LED융합 문화상품을 개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문화상품 디자인과 개발에 전문성을 지닌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공방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해, 더 다양하고 실용적인 상품 발굴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적은 금액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상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상품을 발굴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또는 광주디자인센터 홈페이지(www.gdc.or.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5월9일까지 광주디자인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디자인센터(062-611-5042). /채희종기자 chae@

세월호 아픔 함께 합니다

광주시 대책본부 구성

야간 자원봉사자 파견

릴레이 운동 전개

광주시가 대학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포함한 각계 기관들이 망라된 세월호 참사 지원대책본부를 구성해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는 안전행정국장을 본부장으로 한 지원대책본부를 구성, 진도군과 진도 체육관 등 현지에서 필요한 물자와 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야간 봉사에 주력하기로 했다.

구조지원활동에는 5개 자치구를 비롯해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세계로병원·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광역정신건강센터·광주응급의료정보센터 등 의료관련 기관 롯데칠성, 대한상공회의소, 궁전제과, 한국제과장학회 회원, 대인시장 여성회, 대인시장 상인회 등 유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일반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참사 이후 광주시는 매일 소방안전본부에서 구급인력(24명)을 파견해 구급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의 의료 인력도 매일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자체 구입한 모포·이불·바닥 매트·우의·화장지·생수 등 구호물품과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20일까지 전달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1일 간부회의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이 진행중인 진도에 야간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릴레이운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이날 회의를 시작한 강 시장은 "현지에 주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지만 야간에는 봉사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토지이동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호평

광주 작년 1만1709건 이용

광주시의 토지이동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시민들의 행정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동(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등기촉탁대행 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며, 시민들은 지난해에만 1만1709건을 이용, 5억2600만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봤다.

실제 광주시는 토지 이동으로 발생한 모든 부동산의 토지표시변경 처리를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한 등기촉탁으로 대행 처리함으로써 소유 시민이 등기정리 시 부담해야하는 1건당 4만5000원의 등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586건을 처리, 2600만원을 절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